

‘착한 사마리아인’

이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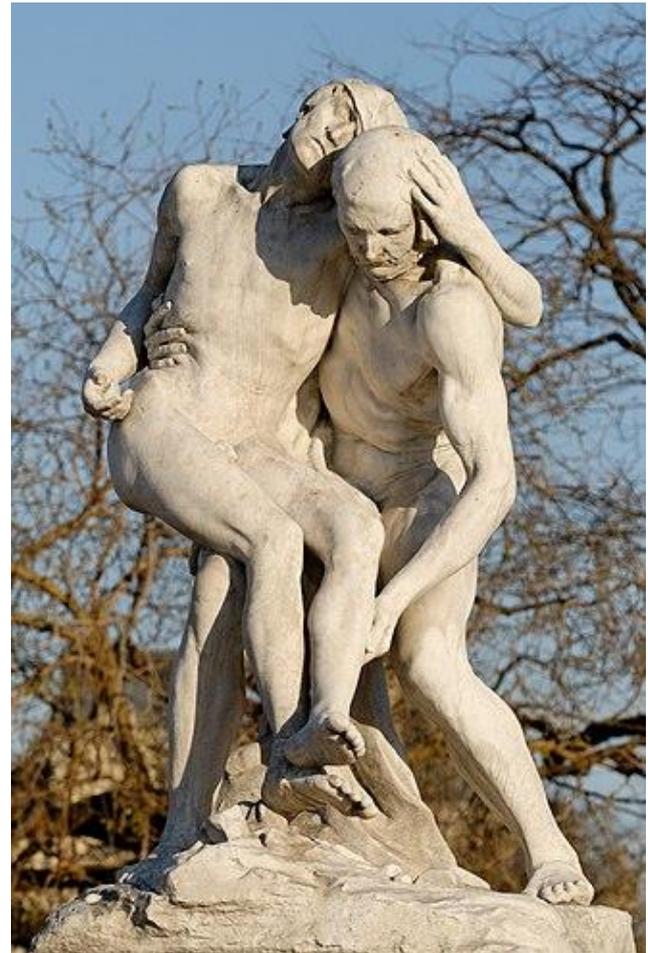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

- 이번 발표는 월드뷰 2021년 12월호에 게재된 글, “일자리, 시장친화형 복지, 성장이 최고의 복지”를 바탕으로 극히 일부분만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질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

- 착한 사마리아인,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복지제도의 팽창에 찬성?
- 복지제도의 팽창이 가진 의미를 간파한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도 반대할 것.
- 더 나아가 복지제도를 해야 한다면 시장친화적 방식을 권하고, 경제성장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않았을 것



# I. 일자리 복지와 복지제도의 팽창

시장경제는 소비자에게 잘 봉사할수록 보답을 받는 체제

일자리: 생산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남들에게 열심히 봉사함으로써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남들이 나에게 봉사해주는 것들을 구매해 서로 교환한다는 의미



# 생산(교환) 대 (법적) 약탈

"There are two fundamentally opposed means whereby man, requiring sustenance, is impelled to obtain the necessary means for satisfying his desires. These are work and robbery, one's own labor and the forcible appropriation of the labor of others."  
~ Franz Oppenheimer



# 생산(교환) 대 (법적) 약탈

이렇게 남들에게 봉사한  
대가로 번 돈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활한다.

이런 가치관 속에는 가족에  
대한 헌신, 종교활동, 자선  
등이 포함되는데 ... 그는 그  
돈으로 좁게는 가족,  
멀리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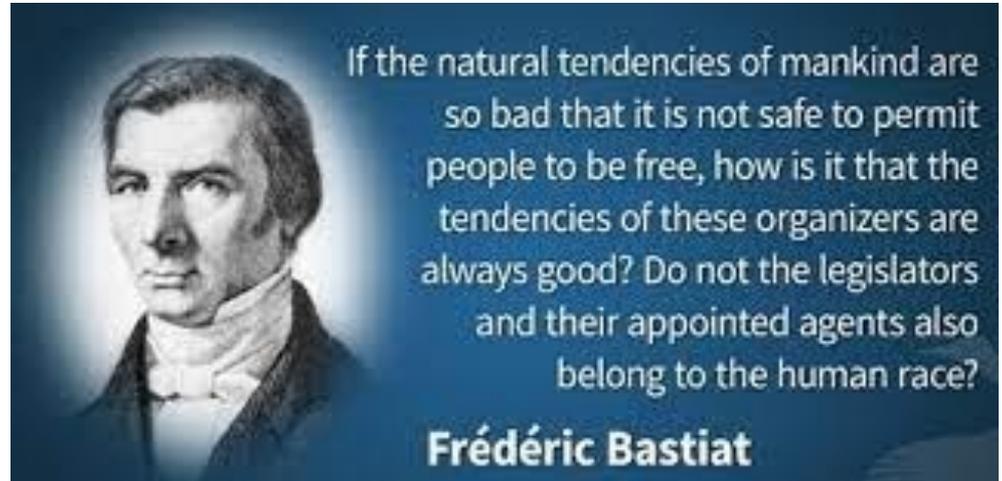
이런 생산(과 교환)이 아니라  
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는 방법은 남  
의 생산물을 약탈하는 것밖  
에 남지 않는다

(Franz Oppenheimer  
(1864~1943), *The State*).

# 생산(교환) 대 (법적) 약탈

약탈이란 유랑하는 도적  
떼가 마을을 습격해서  
그들의 생산물을 폭력으  
로 빼앗는 것뿐 아니라

양초업자들의 보조금  
입법 로비 같은 '법적 약  
탈' (legal plunder)이야  
말로 현대적 약탈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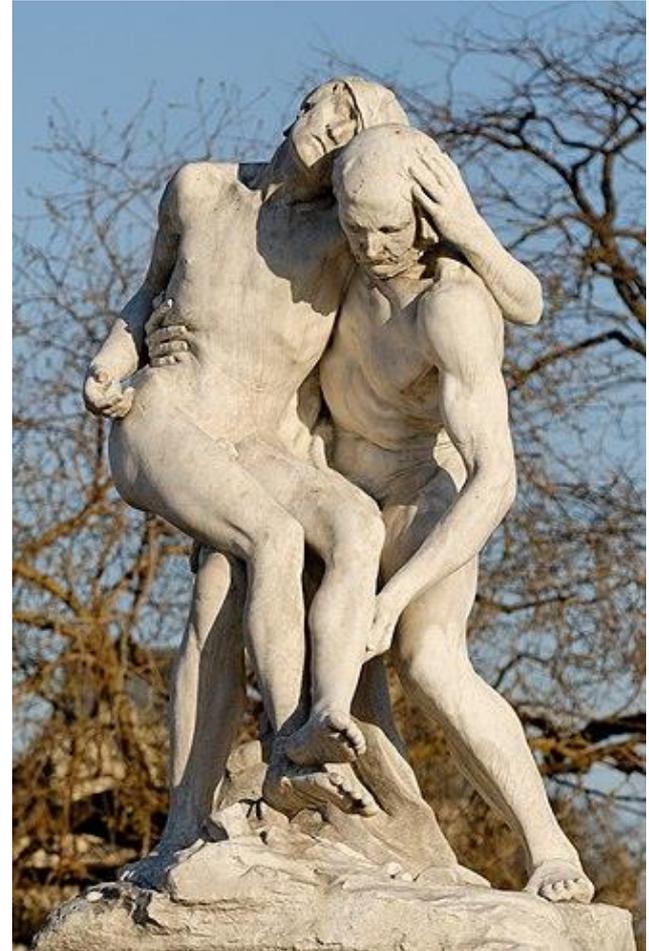


“너무 강력한 경쟁자인 태양과  
한낮에는 경쟁할 수 없으니 국가  
가 보조금을 줘야 한다!”

(바스티아, 《법》)

# 질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

-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 이런 약탈을 멀리하고 생산과 교환의 방법을 취할 것
- 국가 제공 사회복지의 경우, 그 재원이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라 강제적 세금 혹은 정부의 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 이런 자원 조달 속에 **법적 약탈**의 요소가 숨어있음을 간파해야



# 세금=정부 서비스의 가격 OR 강제 징수?

- 세금, 납세자들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고,
- 정부의 채권 발행 /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부담을 지우는 ‘치명적’ 문제점 안고 있어!



민경국, 맨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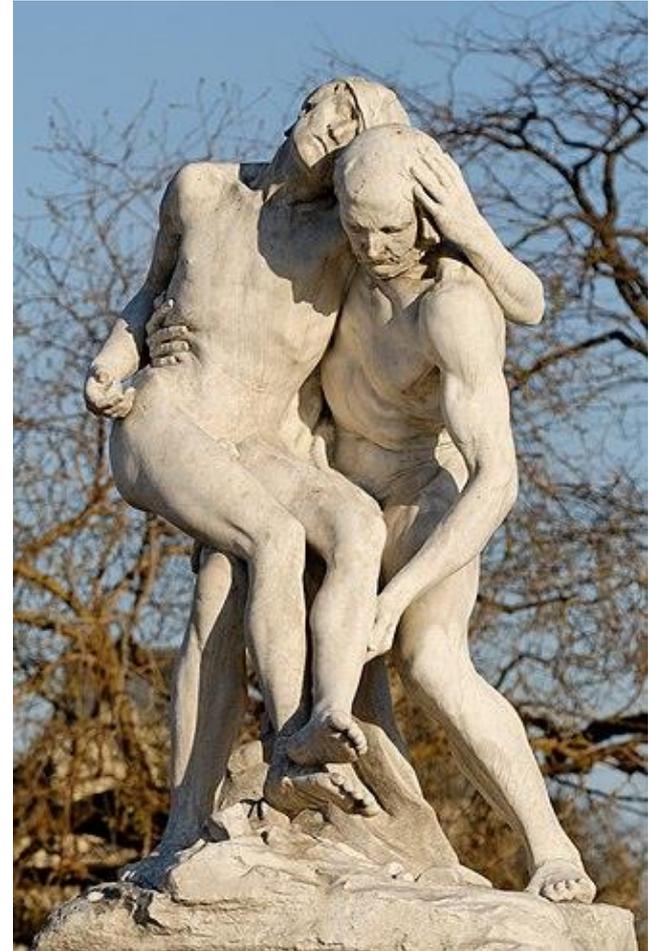
빛을 더 많은 빛을 내어 막는 방식의  
국채 발행은 **폰지 사기** / **미래세대 약탈**

# 사회복지제도 파탄위기 속에 숨은 약탈

- 장수 & 출생률 저하
- 정부의 채권발행이 불가피한데, 비록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법적 약탈'을 하는 셈
- 이런 법적 약탈이 자행될수록 생산을 위한 투자기금 고갈, 일자리도 감소.
- 이런 법적 약탈로 일을 해보야 마음대로 쓸 가처분소득이 줄어, 일할 마음이 나지 않음.
- 이런 상황이 다시 출산율을 낮추는 악순환

# 착한 사마리아인

- 착한 사마리아인,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복지제도의 팽창에 찬성?
- 복지제도의 팽창이 가진 의미를 간파한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도 반대할 것.
- 동의하시는지요?



## II. 시장친화형 교육바우처와 학교 채플

광주보건대, **예배 형식의  
채플수업**의 이수가  
졸업요건/ 인권위와 충돌

어떤 종교의 자유?

국가인권위; 이런 졸업요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대체수업 개설 권고

건학 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자유/ 종교를 가르칠 자유



**종교의 자유 속에 '자신의  
종교'를 전파할 자유는 없나?  
혹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훈육의 자유는 없나?**

# 시장친화형 교육바우처/ 학교 채플 가능케 해

광주보건대, 인권위의 권고  
일부 수용: **정부 지원금**

광주보건대, 지원금 받지 않으면 이  
를 받는 학교에 비해 더 비싼 등록금  
을 책정해야 해서, 학생 모집 더 어려  
워지거나 재정 압박을 받을 것

**사립학교인데도... 입학을 위한  
사람도 인지했을 텐데**

**물론 여러 종교와 무신교가  
공존하는데,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 교육은 불가**



최근 교육이 '기회의 평등' 실현 방법으  
로 인식되면서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전방위적  
으로 확대/

다양한 관점과 방식의 교육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 탈출구: 사립학교에도 쓸 수 있는 교육바우처

정부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더라도 그 제공자가  
반드시 공립학교일 필요 없어

사립학교에도 쓸 수 있는 '교육  
바우처' 제도 아래에서는

**종교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존재하고,  
그런 교육을 제공하는  
사립학교가 있는 한  
그런 종교 교육도 가능**



공립학교에 대한 바우처 도입은 '효율적' 교육을 위한 제안이었지만, 이를 사립학교에까지 확장하면 이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갈등 없이 누리게 할 수 있다 (김이석, 《변영은 자유주의로부터》 116-150)

# 선택할 자유와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

스웨덴의 사례: 교육을  
공무원에게서 해방시켜라.  
유치원과 학교에 자유를 주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자신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하라.  
(프리트먼, **선택할 자유**)

그래야 유치원과 학교가  
다양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에 맞는 인재로 커갈  
수 있다.  
(하이에크,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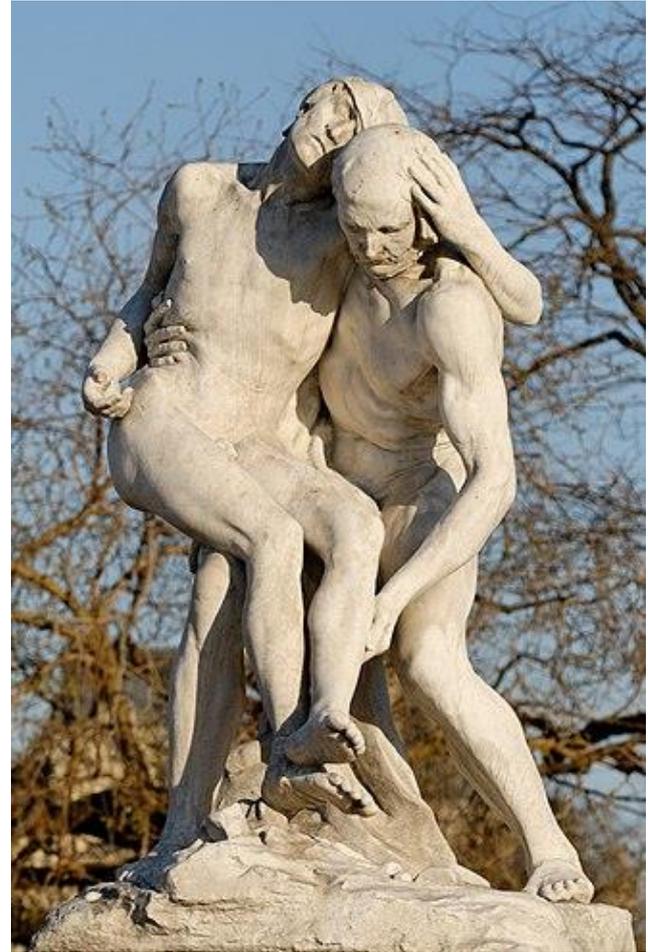
이동식 유치원도 있어



스웨덴의 유치원들은 대부분 아침 06:30  
부터 18:30까지 12시간 문을 연다. 공·사  
립이 모두 그렇다. 맞벌이 부부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9시에 문 열고 2시면 아이  
들을 하원시키는 한국의 공립유치원들과  
는 무척 다르다.

# 착한 사마리아인

- 착한 사마리아인,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복지제도라도 선택의 자유와 경쟁을 통한 발견이 가능한 ‘교육 바우처’와 같은 시장친화적 방식에 찬성할까?
- 아니면 경쟁은 피곤한 것이라면서 반대할까?



# III. 복지제도의 팽창과 자조적 활동의 퇴화

시장경제가 발전할수록,  
개인이 원자화되고, 공동체적 유대  
가 파괴되는가?

시장경제의 발전이란 생산과정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나의 가치관에 따라 쓰는 교환의  
과정이 정밀해진다는 의미일 뿐

이렇게 번 돈으로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면 끈끈한 가족의 유대가 형  
성되고, 종교 생활에 충실하다면  
종교 공동체 속의 유대도 커질 것

“현재 복지국가는 유모국가(nanny state)로 진화하고 있다. 국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보조금을 주고, 우유값을 보조하고, 유치원에 보낼 때 비용을 지급한다. 이처럼 국가가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데 힘을 쓸수록, 노후를 책임져줄수록 남에 대한 관심은 커녕 자신의 부모나 자식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 간의 유대는 국가와 개인 간의 유대로 대체된다. 여기에서 국가는 사람이 아니므로 개인들은 원자화되는 것이다”  
(김이석, 앞의 책 185)

# 생각해볼 사례들

## 들은 이야기

편모 슬하에서 자란 흑인 스포츠 스타의 경우;

스타가 된 후, 생물학적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대개...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려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모이를 물어다 나른 '어미 새'만큼도 아들을 애정으로 돌보지 않았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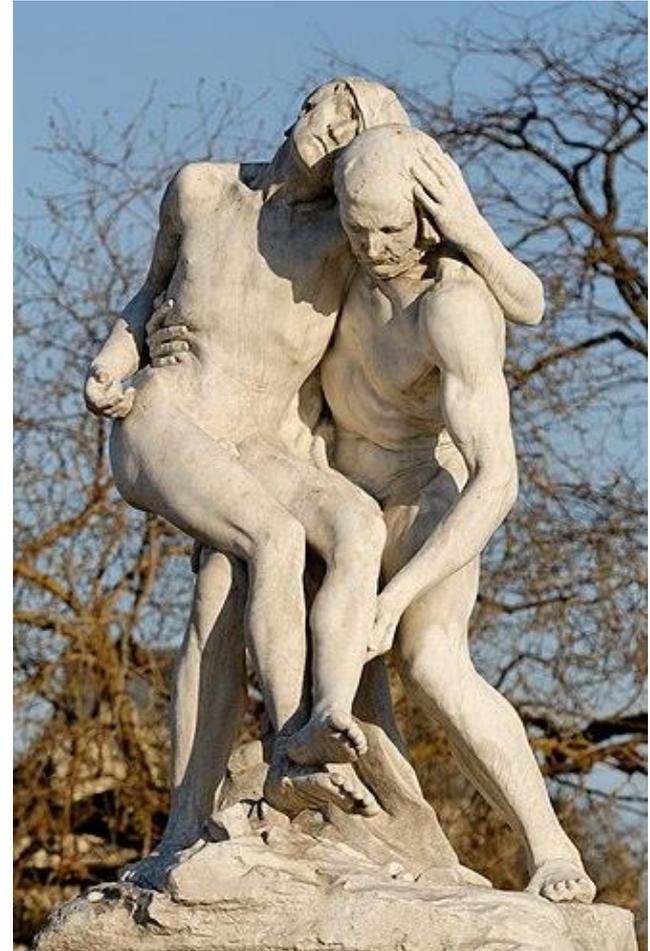
## 경험한 이야기

뉴욕시의 한 혼자 살던 할머니;

사망 후 아들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만 1주일 걸려

# 착한 사마리아인

- 착한 사마리아인,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복지제도의 팽창에 찬성?
- 복지제도의 팽창이 가족의 유대까지 약하게 만든다면...
- 아마도 반대할 것.



# IV. 경제성장과 복지

‘착한 사마리아인’은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고 물질적인 혹은 경제적인 것을 경시하지는 않을까?

광주보건대의 사례에서 보듯이, 채플 수업과 같은 건학 이념을 따르는 종교 활동조차 ‘정부의 지원금’이란 물질적 제약에 영향 받아 ...

“권력이 자의적이  
않도록 방지해주는 것은  
권력의 ‘원천이 아니라  
권력의 ‘제한이다.”



물질적 혹은 경제적 수단은 언제나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수단을 통제당하면 결과적으로 목적을 통제당하는 것이 된다.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자유만 통제되고 다른 자유들을 보존된다고 선전되었지만, 실은 삶 전체가 통제를 당해

하이에크, 《노예의 길》

# 《노예의 길》 메시지:

전체(사회)주의 계획은 개인 삶에 대한 통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목적에 대한 최종 심판관

경제 통제는, 삶에 대한 통제

(경제적 자유는 통제하지만 다른 자유들을 보장한다는 건 불가능!): 수단에 대한 통제가 결국 그 수단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통제가 된다!

개인은 계획자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장기판의 졸/  
개인적 목적을 품는 것 자체를 죄악시/ 그런 것이  
‘자유’라고 선전/ ‘생산은 내가 소비는 사회가’ 라는  
방식이 주는 동기상의 문제→New Man의 탄생

# “물질적 통제와 정신적 자유의 보존”이란 허상

경제적 자유만 따로 통제할 수 없다.

-경제적, 물질적인 것은 수단. 따라서 이를 경멸해도 무방?

아니다. 수단을 통제하면 실제로는 '목적'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

인쇄의 수단인 인쇄기를 통제하면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삶의 통제가 가능해진다.

# 결론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면?

- 착한 사마리아인, 약자를 돕자는 취지의 복지제도의 팽창에 찬성?
- 복지제도의 팽창이 가진 의미를 간파한다면, 착한 사마리아인도 반대할 것.
- 더 나아가 복지제도를 해야 한다면 시장 친화적 방식을 권하고, 경제성장의 의미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을 것!

